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7년 11월 16일 창립된 공기업으로, 창립 다음해인 1968년 11월 직원들의 기술업무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도서실이 설치되었다.

1977년 3월부터 전문사서에 의한 체계적인 도서실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1989년부터 기술자료 전산화를 시작하였고, 1998년 10월에 수자원정보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여 공사 발간자료에 대한 全文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시발점으로 물 전문기관에 걸맞는 물전문정보센터로서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도서형태로는 일반단행본, 수자원공사 발간도서, 타기관도서 등을 포함하여 8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CD-ROM과 DVD 등 멀티미디어 자료는 9,000여종, 연속간행물은 30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도서형태 중 30,000권이 보고서류이며 이들 보고서 중 25,000권에 대해서 목차 및 초록이 구축되어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발간보고서는 12,000권 중 6,000권은 원문구축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완전 원문 구축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자원에 관한 전문자료를 확보하여 적시적소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자원정보센터는 보다 효율적인 정보자원 공유를 위해 정보센터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소 및 전국의 사업부서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부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 활용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수자원에 관한 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수자원 전문가들의 개인소장 장서를 기증 받아 현재 약 9,000여권에 이르는 기증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자체 자료 제공만으로는 최신의 기술정보환경을 따라갈 수 없음에 따라, 최신 정보검색 및 원문 이용을 위해 (주)한국학술정보와 계약을 맺어 약1,200여개의 학술단체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원문을 볼 수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등과 연계한 서비스와 함께 Science Direct, ASCE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전자저널을 구독함으로써 직원들의 정보접근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① <수자원정보센터 Digital Library>



② <수자원정보센터 직원들_정기명, 장영숙, 김은정, 안수원>

또한 수자원정보센터는 물 정보 제공의 선두주자에 걸맞게 수자원과 관련한 각종 뉴스들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고자 직원들을 위해 맞춤정보관리서비스, 정보검색서비스, 원문복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에 위치한 사업단의 이용자들 위해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을 통한 대출신청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대출의뢰가 들어온 자료는 즉시 택배로 처리해 주는 “우편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자원정보센터는 “책 읽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는 “부서 직원독후감 대회”는 직원들의 독서함양과 독서를 통해 얻어진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해 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여름방학에 맞추어 실시되는 “직원가족 독후감 대회”는 직원가족들의 독서를 통한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한마음 다지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글쓰기교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직원 자녀들의 글짓기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향후 이러한 책을 통한 이벤트는 직원 및 직원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과 독서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로서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앞으로 수자원정보센터는 국내?외 수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센터"를 목표로 전자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직원들의 업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수자원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열린 수자원정보센터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